

배우 조은지, 장편상업영화 감독 데뷔전... '장르만 로맨스'

베스트셀러 '버라이어티한' 사생활 그린 작품

류승룡·오나라 등 참석... 다음달 극장 개봉

배우 조은지의 장편상업 영화 감독 데뷔작 '장르만 로맨스'가 관객을 찾는다.

12일 오전 '장르만 로맨스' 제작보고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엔 조은지 감독을 비롯해 배우 류승룡과 오나라, 김희원, 이유영, 성유빈, 무진성이 참석했다.

'장르만 로맨스'는 평범하지 않은 로맨스로 얽힌 이들과 만나 일도 인생도 꼬여 가는 베스트셀러 작가의 '버라이어티한' 사생활을 그린 작품이다.

조은지 감독은 "다양한 여섯 명의 인물들이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관계라는 소재로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들의 관계로 성장하는 유쾌한 이야기"라고 작품을 설명했다.

류승룡이 주인공이자 7년째 고정 출연 중인 베스트셀러 작가 현을 맡았

다. 류승룡은 지난 2019년 초 개봉한 1000만 영화 '극한직업' 이후 3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했다.

류승룡은 "행동 애드리브가 꽤 있었다"고 촬영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흔히 대사가 애드리브인 경우가 많은데 나는 몸짓 제어가 잘 안 되더라. 김희원 배우 엉덩이를 찔쩍 때리기도 했다. 리얼한 반응을 잡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희원은 "그 장면이 카메라에 잘 잡혔기를 바란다. 정말 아팠고 놀랐다"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조은지 감독은 "류승룡 선배님이 워낙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애드리브를 치신다. 저도 모르게 소리내 웃어 민폐를 끼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은지 감독에게 이번 작품에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이 있는지 물었다. 그

는 "장면마다 인물들에게서 보이는 감성을 잘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기도 전에 배우분들이 워낙 대사에 대한 이해가 높아서 알아서 잘해 줬다. 정말 편하게 많은 도움을 받으며 작업할 수 있었다"고 배우진을 치켜세웠다.

오나라가 현의 전 부인 미애를, 김희원이 미애와 비밀 연애 중인 순모를 연기했다.

김희원은 "오나라와 멜로를 기대해도 좋을 거다. 사실은 오나라가 저보다 더 세다. '센케'(센케리다). 이 영화에서도 (미애가 순모에게) 계속 뭐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을 연기한 류승룡에 대해서 "작품으로는 처음 만났지만 케미가(호흡이) 좋았다"고 소개했다. 이에 류승룡은 "순모가 현에게 자꾸 무언가를 숨긴다. 그래서 친구지만 40% 케미를 발산했다"고 했다.

무진성은 현과 공동 집필하는 천재 작가 지망생 유진을 연기했다.

그는 "촬영 전 제 카툰 프로필에 류



감독 조은지(왼쪽부터), 배우 김희원, 오나라, 류승룡, 성유빈, 이유영, 무진성이 10일 영화 '장르만 로맨스' 온라인 제작보고회를 하고 있다. (사진=NEW 제공)

승룡 선배님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프로필로 등록했다. 선배님을 만났을 때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런 부분에서 편했다. 근데 선배님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당장 내리라고 하셔서 바꾸었다. 지금은 자연 사진'이라고 촬영 비하인드를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조은지 감독은 감독으로 데뷔

를 앞둔 소감에 대해서 "기대도 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 여러 감정이 오가는데 떨림이 크다. 그럼에도 많은 관객들께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크다"고 떨리는 마음을 전했다.

이에 류승룡은 "조은지 감독은 신인 감독 같지 않고 묵은지 같다"고 그를

칭찬했다. 이어 "연기 디렉션을 정확하게 줘서 그대로 구현만 하면 됐다. 양질의 디렉션이 굉장히 좋았고 부족한 창의력으로 감히 상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고 말했다.

'장르만 로맨스'는 11월 극장에서 개봉한다.

뉴스

넷플릭스, 월마트와 함께 '오징어 게임' 굿즈 판매

월마트 홈페이지, 넷플릭스 굿즈 전용 공간 구축



넷플릭스가 월마트와 협력해 본격적으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인기 오리지널 콘텐츠들의 굿즈를 판매한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월마트 홈페이지에 '오징어 게임' 등 자사의 인기 시리즈 관련 상품들을 모아둔 '넷플릭스 허브'를 구축하기로 했다.

넷플릭스는 이미 자체적인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기묘한 이야기', '위쳐' 등과 관련

된 티셔츠나 소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소매업체와 손 잡고 전용 온라인 매장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시 사이먼 넷플릭스 소비자 상품 담당 부사장은 "최대 규모의 온라인 시장인 월마트에서나 자체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팬들을 만나고 싶었다"면서 "진정한 가치는 넷플릭스 영화와 드라마들에 대한 팬들의 사랑을 키우는 데 있다"고 말했다.

WSJ는 넷플릭스가 핵심 사업인 구

독 서비스를 넘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자체 플랫폼에서 벗어나 콘텐츠를 마케팅하려는 목적으로 월마트와 제휴를 맺었다고 보도했다.

넷플릭스는 2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트리밍 서비스이지만 최근 들어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특히 월트디즈니의 디즈니플러스와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가 속속 출시되면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넷플릭스는 비디오 게임 시장 진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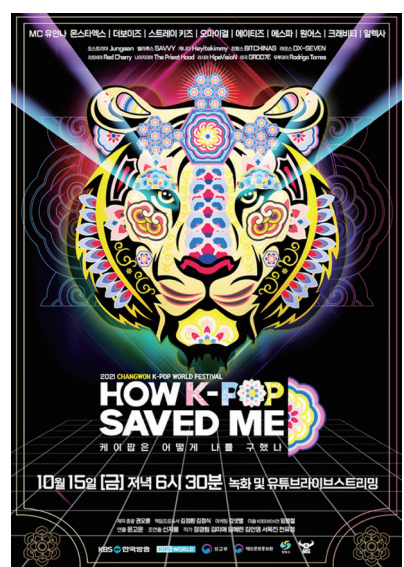
하지만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여전히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넷플릭스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WSJ와의 통화에서 전자상거래(이커머스)나 비디오 게임 같은 신규 사업 부문이 중요한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구독 서비스가 성장하고 사람들의 삶에서 더 중요해지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제프 에반스 월마트 부사장은 "이번 제휴는 월마트가 넷플릭스 팬층과 연계해 잠재적으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15일 개최... 몬스타엑스 등 공연



외국인 참여하는 지구촌 한류 축제

12일 외교부는 지구촌 최대 케이팝(K-pop) 축제인 '2021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최종 본선이 오는 15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은 한국 대중가요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지구촌 한류 축제다.

예선은 74개국 80여개 한국 재외공관과 문화원에서 개최됐다.

예선 통과팀 심사를 통해 미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나이지리아 등 총 10개국 팀이 최종 본선에 진출했

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종 본선은 15일 오후 6시30분 유튜브 채널(KBS WORLD TV)을 통해 생중계된다.

최종 본선 사회는 배우 유인나가 맡았다. 몬스타엑스, 더보이즈, 스트레이 키즈, 오마이걸, 에이티즈, 에스파, 윈 이스, 크래피티 등 케이팝 스타들의 풍성한 공연도 준비됐다.

이 행사는 외교부, 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 한국방송공사(KBS)가 공동 주최하고 장원시가 후원한다.

B tv 오리지널 콘텐츠 '힐링산장 시즌2' 첫 방송

힐링 음악 버라이어티

이수영과 개그맨 허경환이 새로 합류해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힐링산장 시즌2'의 첫 번째 게스트는 그룹 주얼리 출신의 '원조 요정' 이지현이 7년 만에 방송 나들이에 나선다. 주얼리 원년 멤버에서 연기자로,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로 인생 3막을 열고 있는 이지현과 함께 충남 보령으로 힐링 여행을 떠난다. 그녀가 지난 7년간 왜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안타까운 속사정을 방송에서 최초 공개한다.

이날 오후 6시 'B tv 케이팝'의 '우리동네 B tv' 채널(1번)에서 첫 방송 메인MC인 산장지기는 시즌1과 동일하게 배우 전광렬이 맡고, 가수

8시30분에는 '채널S'에서도 첫 방송된다. 고영호 SK브로드밴드 케이블방송본부장은 "지역채널 프로그램의 질적 가치에 집중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분위기에 속에서도 시청자의 마음을 치유하고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는 명품방송을 선보여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퀴 달린 집3' 성동일 "공명, 눈부터 착하고 맑은 친구"

내일 첫 방송

tvN '바퀴 달린 집3'이 어느덧 세 번째 시즌을 함께 하는 성동일, 김희원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12일 제작진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성동일과 김희원은 '바퀴 달린 집'에 대한 무한 애정을 드러냈다.

성동일은 '바퀴 달린 집'은 사랑방 같은 곳이라며 "벌써 전국 유랑을 다닌 지 일년 반이나 됐다. '바퀴 달린 집'을 좋아 해주시는 시청자분들 덕분에"이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김희원은 "저에게 '바퀴 달린 집'은 늘 새로운 공간이다. 매년 다른 곳을 찾아가다 보니 언제나 낯설다. 그래서 아직도 적응 중"이라는 특유의 엉뚱함이 묻어나는 대답으로 훈훈함을 더했다.

특히 이번 시즌3에는 공명이 '새 막둥이'로 합류해 시청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예고 영상에서 공명은 해피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힐



링 막둥이'로 등극해 두 형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에 성동일은 "공명과는 오래 여행을 다닌 사이처럼 처음부터 손발이 잘 맞았다. 눈부터 착하고 맑은 친구"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김희원도 "공명은 정말 모든 면에서 관찰은 친구다. 원래부터 같이 여행을 다녔던 친구 같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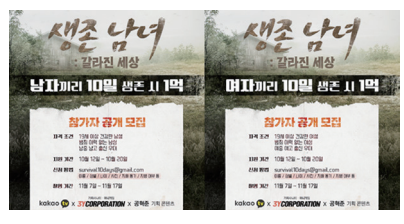
또 성동일은 '바퀴 달린 집3'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에 대해 "평소에 '어머니'라고 부르던 분을 드디어 손님으로 모셨다"고 전해, 과연 어머니의 존재는 누구일지 방송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바퀴 달린 집'을 보는 큰 재미 중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방송을 통해 공개되는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경치다. 성동일과 김희원 역시도 이를 '바퀴 달린 집3'의 관전포인트로 꼽았다. 이는 가을 정취 듬뿍 담아낼 시즌3에 대한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다.

한편, '바퀴 달린 집3'은 바퀴 달린 집을 타고 한적한 곳에 머물며 소중한 이들을 초대해 하루를 살아가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성동일, 김희원, 공명까지 삼형제의 가을 맞이 유랑 집들이가 따스한 웃음과 힐링을 선사한다.

오는 14일 오후 8시 30분 첫 방송된다.

1억 상금 현실판 '오징어 게임'?... 카카오투 '생존 남녀'



만 19세 이상 남녀 참여

승리한 팀이 1억원의 상금을 갖게 된다.

만 19세 이상의 건강한 남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일까지 공식 계정에 안내된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은 '진짜 사나이'를 선보였던 카카오편터먼트 김민종 CP가 연출 총괄을 맡는다. '가짜 사나이'의 3Y코퍼레이션 배철순CP와 '와 썬맨'의 카카오편터 이준영PD가 함께 공동 연출을 담당한다. '진짜 사나이'와 '가짜 사나이' 제작

진의 의기투합으로 특유의 탁월한 기획과 연출력을 그대로 살려 생생하고 긴장감 넘치는 리얼리티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공혁준이 특별 기획으로 함께 참여했다.

제작진은 "극한의 환경 속에서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해 보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가진 이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제작진은 참가 신청자 중 최종 참가자를 선정해 다음달 본격 촬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공개는 올해 말로 예정돼 있다.